
공주시 인구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지 사례조사

-출장 결과보고-

2019. 3.

|| 목 차 ||

I. 출장 개요	1
1. 출장 기본계획	1
2. 출장 일정	3
II. 현장 사례조사 결과	9
1. 쿠라시키시	9
① 쿠라시키 미관지구	11
② 마치야 트러스트(NPO)	17
③ 아이비 스퀘어	19
2. 나오시마초	19
① 베네세의 이에 프로젝트	24
② 세토내해 국제문화제 추진단	30
3. 마니와시	35
① 마니와시 바이오매스	37
② 중화 마을만들기 위원회	44
③ 광역폐기물 리사이클링 사업 협동조합	47
④ 목재 마을 거리	48
4. 미마사카시	50
5. 나기정	56

1. 출장 기본계획

□ 개요

- 일 정 : 2019. 3. 4.(월) ~ 3. 9.(토) / 5박 6일
- 주 관 : 충남연구원, 공주시
- 인 원 : 4명(공주시 공무원(1), 충남연구원(3))
- 방문도시 : 일본(구라시키시, 마니와시, 미마사카시, 나기정, 나오시마, 다카마쓰시)

□ 대상지 선정 배경

- 수탁과제의 핵심 추진사업 발굴을 위한 ①일본 기초지자체 인구활성화 사업조사, ② 지역자원 활용 정주여건개선 민관협력사례 심층조사, ③기업연계 인구유입 모델 검토
- 일본은 타 국외 선진지보다 역사적·사회적 유사성으로 유의미한 시사점 도출 용의하며, 과소지역 특별법 제정(1990년)이래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 경험축척 등의 면에서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
- 따라서, 제한된 예산으로 다양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일본을 현장조사 대상지로 선정함

□ 주요 조사 내용

- 일본 기초지자체 인구활성화 사업조사
 - 인구감소를 일찍이 경험한 일본의 기초지자체의 인구증대를 위한 정책사업의 수립 및 운영 등 조사

- 특히, 일본 총무성의 인구과소지역 자립활성화 우수사례(2018년) 중심으로 정책 및 사업 조사 추진
- 지역자원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 등 민관협력사례 심층 조사
 - 바이오매스, 경관, 빈집 등 미활용 지역자원 활용 플랫폼 구축과정
 - 민간참여 촉진 및 자립운영을 위한 프로세스 조사
- 기업연계 인구유입 모델 검토
 - 기업참여 성공사례를 통해 인구유입 모델 검토
 - 특히 공주시의 문화예술 활동측면에서의 도입 및 활성화 검토

□ 구성원 역할

- 공주시 : 1명
 - 공주시정에 맞는 정책·사업적용 가능성 검토 및 방안 모색
 - 인구과소 대응을 위한 한·일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 구축
 - 선진사례를 통한 민관협력모델 도입 추진
- 충남연구원 : 3명
 - 인구정책 및 사업에 관한 최신자료 수집
 - 중장기발전 계획의 핵심추진 사업 발굴
 - 지역자원 활용플랫폼 구축 및 현장적용 가능성 검토
 - 지역기업연계 모델 검토
- 조사원 현황

구분	성명	직책	주요역할
1	송두범	수석연구위원	조사총괄 및 기획 과제 사업발굴
2	김난숙	공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청년정책팀장	정책도입 가능성 검토 지자체간 파트너십 구축
3	박춘섭	책임연구원	조사대상지 연락 및 통역 지역자원 활용플랫폼 검토
4	이홍택	전문연구원	인구정책 최신자료 입수 지역기업 연계모델 검토

2. 출장 일정

□ 제 1일차

일 자	지 역	시 간	일 정
제1 일 03/ 4 (월)	인 천	06:05	인 천 국 제 공 항 2청 사 집 결
		08:05~ 09:35	인 천 국 제 공 항 출 발 → 오 카 야 마 공 항 도 착
	오 카 야 마 구 라 시 키 시	09:35~ 10:10	입 국 수 속 및 렌 터 카 수 령 (공 항)
		10:10~ 10:50	공 항 → 고 라 쿠 엔 이 동
		10:50~ 12:30	<div><div>▣ 공식일정 - 고라쿠엔 및 오카야마 성</div><div>-목적 : 일본의 성 및 공원활용 정책형성 및 방문인구 유입 촉진방향 검토</div><div>-활용 : 유동(방문)인구 증가방안</div></div>
		12:30~ 13:30	중 식 : 라 멘 집 Ippudo
		13:30~ 14:30	숙 소 이 동 : 아 이 비 스 퀘 어
		15:00~ 18:00	<div><div>▣ 공식일정 -구라시키시 방문</div><div>-목적 : 구라시키시 문화재 및 경관 활용한 정책형성 및 인구유입 촉진방향 검토</div><div>-만남장소 : 구라시키 모노가따리관(미관지구 앞)</div></div>
		18:00~ 19:30	석 식
		19:30~ 21:00	미 관 지 구 탐 방 (야 간 조 명 등)
	21:00~	온 천 욕 및 취 침 : 아 이 비 스 퀘 어	

□ 제 2일차

일 자	지 역	시 간	일 정
제2 일 03/5 (화)	구라시 키시/ 나오 시마	07:00~ 08:00	조식 및 우노항(UNO) 이동
		08:22~ 09:42	우노 → 나오시마 미야노우라
		10:00~ 13:00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blue; padding: 5px;"> ■ 공식일정 : 나오시마 방문 -목적 : 주택가내 문화예술촌 구축 및 주민참여 사례조사 -방문지: 나오시마 집프로젝트 등 필드조사 </div>
		13:00~ 14:00	중식 : 미야노우라 항 근처식당
		14:20~ 15:20	나오시마 미야노우라 항 → 다카마쓰시 이동
		15:20~ 15:50	인터뷰 준비
		16:00~ 18:00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blue; padding: 5px;"> ■ 공식일정 : 다카마쓰시 방문 -목적 : 행정-주민-대기업 연계 지역활성화 경험 청취 및 질의 -방문지: 카가와현(국제예술추진과) -만남장소 : 여객터미널 옆 건물 </div>
		18:00~ 19:00	석식 : 스시 やまと 1-10 Gobomachi, Takamatsu, Kagawa Prefecture 760-0044 일본
		19:00~ 21:00	다카마쓰성 산책 및 야경(다카마쓰 심볼타워)
		21:00~	숙소 체크인 및 휴식

□ 제 3일차

일 자	지 역	시 간	일 정
제3일 03/6 (수)	마니 와시	08:00~ 09:00	호텔 조식
		09:00~ 09:30	▣ 다카마쓰성 방문
		09:30~ 10:30	<div> <div>▣ 공식일정 - 다카마쓰 시립미술관 방문</div> <div>-목적 : 시립미술관의 조성방식과 활성화 사례 조사</div> <div>-활용 : 박물관 활성화를 통한 유동인구 유치 방안마련</div> </div>
		10:30~ 12:00	<div> <div>▣ 공식일정 - 리츠린 공원 방문</div> <div>-목적 : 공원 활성화 사례 조사</div> <div>-활용 : 공원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방안 모색</div> </div>
		12:00~ 13:00	<div> <div>중식 : 사누키 우동, 바카이치다이</div> <div>(760-0063 Kagawa Prefecture, Takamatsu, Tagacho, 1 Chome-6-7)</div> </div>
		13:00~ 15:20	다카마쓰→마니와시 이동
		15:20~ 16:00	인터뷰 준비 및 휴식
		16:00~ 18:00	<div> <div>▣ 공식일정-마니와시 방문</div> <div>-목적 : 산촌자본주의 표방한 마니와시의 지역자원 활용 정책 청취 및 질의</div> <div>-방문지: 마니와시(교류정주추진과) 및 시청사 견학 (100% 재생에너지 건물) 등</div> </div>
		18:00~ 19:00	유바라 이동
		19:00~ 21:00	숙소 tsuguro 체크인 및 식사(숙소 식사)
		21:00~ 22:00	온천 이용
		22:00~	취침

□ 제 4일차

일 자	지 역	시 간	일 정
제 4 일 03/7 (목)	마니 와시	08:00~ 09:00	호텔 조식 후
		09:15	숙소에서 출발
		09:30~ 10:15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blue; padding: 5px;"> □ 공식일정 - 사단법인 아시다카 방문 -목적 : 산촌 자본주의 활동 사례 분석 -활용 : 산촌 지역의 공동체 조성방안 모색 </div>
		10:15~ 12:00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blue; padding: 5px;"> □ 공식일정 - 작은거점 방문(에가오 상점 등) -목적 : 산촌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조성 사례 조사 -활용 : 공주시 내 산촌지역의 행정·금융 기능구축 검토 </div>
		12:00~ 13:00	중식 : 반딧불 암 http://hotaru-an.com/menu.html
		13:00~ 14:00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blue; padding: 5px;"> □ 공식일정 - 바이오매스 집적지 방문 -목적 :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례 검토 -활용 : 공주시 친환경에너지 구축 방안 모색 </div>
		14:00~ 17:00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blue; padding: 5px;"> □ 공식일정 - 바이오매스 발전소 방문 -목적 :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운영 사례 분석 -활용 :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방안 모색 </div>
		17:00~ 18:00	마니와시 → 나기정 이동
		18:00~ 20:00	숙소에서 식사
		18:00	숙박 : 那岐山麓 山の駅 岡山県勝田郡奈義町高円591-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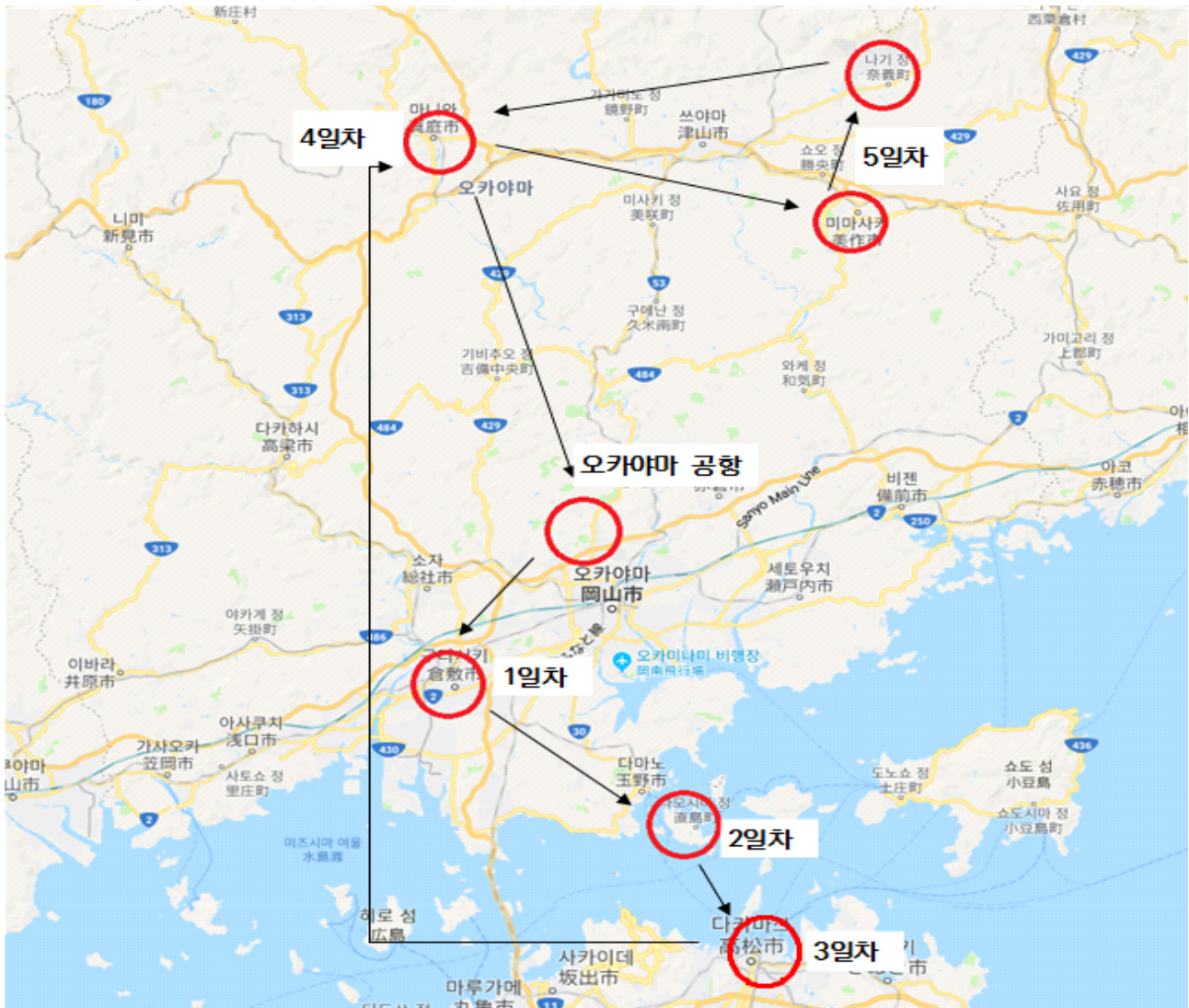
□ 제 5일차

일 자	지 역	시 간	일 정
제5일 03/8 (금)	미마 사카 시	08:00~09:00	호텔 조식
		09:00~09:30	나기정 → 미마사카시
		09:30~10:00	인터뷰 준비
		10:00~12:00	<div><div>■ 공식일정 - 미마사카시 방문</div><div>-목적 : 미마사카시 추진정책 및 질의·응답</div><div>-방문지: 미마사카시(기획정보과)</div></div>
		12:00~12:30	슈라쿠엔 이동(다이묘 정원)
		12:30~14:00	점심 및 슈라쿠엔 관람
		14:00~15:00	■ 슈라쿠엔→나기정
		15:00~18:00	<div><div>■ 공식일정 - 나기정 방문</div><div>-목적 : 나기정 육아지원정책 정취 및 질의·응답</div><div>-방문지: 나기정(정보재정과)</div></div>
		18:00~19:00	석식
		19:00~21:00	나기정 → 오카마야마 플라자 호텔
21:00~	숙박		

□ 제 6일차

일 자	지 역	시 간	일 정
제6일 03/9 (토)	오카 야마	07:00~08:00	호텔 조식 후
		08:00~08:40	오카야마 공항으로 출발
		08:40~10:40	출국수속
		10:40~12:25	인천 국제공항 출발
	인천	12:25	인천 공항 도착 및 해산

□ 일정 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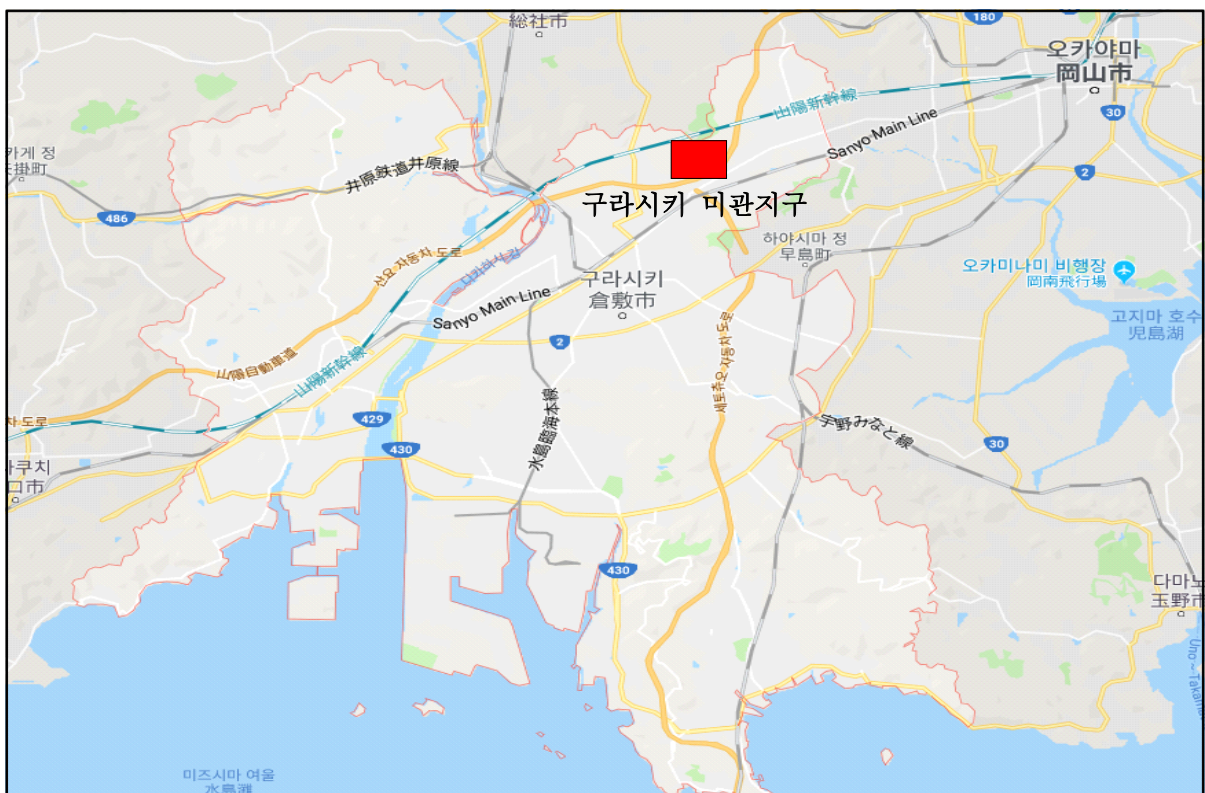
1. 쿠라시키시 : 미관지구 및 마치야트러스트

□ 쿠라시키(倉敷) 개요

- 쿠라시키시는 오카야마현 남서부 위치하고 있으며, 인구 약 48만명, 면적 354.72km²로, 오카야마현내 제2의 도시
 - 쿠라시키는 오카야마 현의 남중앙부에 위치하고 시 서부를 다카하시 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세토 내해로 유입
 - 평야의 상당수는 간척지와 충적 평야가 차지하고 있고 고지마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평탄
 - 쿠라시키에는 고지마, 가메시마 산, 다마시마, 쓰라지마 등 “섬”이 붙은 지명이 많으며 일찍이 부근 일대가 간척되기 이전에 섬이었음을 증명
- 쿠라시키 시는 1967년과 2005년 두 차례 시정촌 통합(합병)되었으며, 네 개의 주요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음
 - 행정과 관광의 쿠라시키(倉敷), 콤비나트(combina)를 가지는 미즈시마(水島), 학생복·청바지의 메카 고지마(児島), 무역항과 신칸센 역이 있는 다마시마(玉島) 등 지리나 역사가 다른 다양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음
 - 그 규모는 쿠라시키가 20만명 미만, 미즈시마·다마시마·고지마는 대체로 10만 명 미만 수준
 - 쿠라시키 시는 행정 인구는 47만 명의 중핵시이지만 항만·공업·관광의 기능을 제외하면 동쪽으로 인접하는 오카야마 시의 위성 도시적 성격
- 현재의 쿠라시키는 에도초기(1615~1624년)의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졌고, 당시 별장과 공납품의 보관창고 부지였음.

- 1642년 에도막부의 대관소가 만들어지면서, 창고와 상가거리가 형성되고 이주자가 증가되었음
- 에도중기 이후에는 공납항로에서 벗어나면서 상인과 장인이 정착하면서 현재의 쿠라시키 거리의 원형을 만들어 냄

- 쿠라시키는 에도시대부터 메이지, 다이쇼, 쇼와 초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건물이 혼재되어 있고 경관보존에 대한 의식이 아직 싹트지 않았던 1940년대 후반부터 몇 명의 지역유지에 의해 경관보존이 시작됨
- 전후 구라시키 도시미협회가 오래된 마을보전의 중요함을 알리고 주민운동을 시작하였으며, 1955년 아사히포토북 “쿠라시키의 안팎” 출판되는 등 구라시키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됨
- 고도경제성장기에 일본원풍경이 남겨진 것 같은 모습으로, 한번쯤 내려보고 싶은 마을로 주목받기 시작함
- 지속적인 경관보존의 노력으로 연간 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일본 내에서 지역재생의 성공사례로 손꼽힘



□ 사례지역 인터뷰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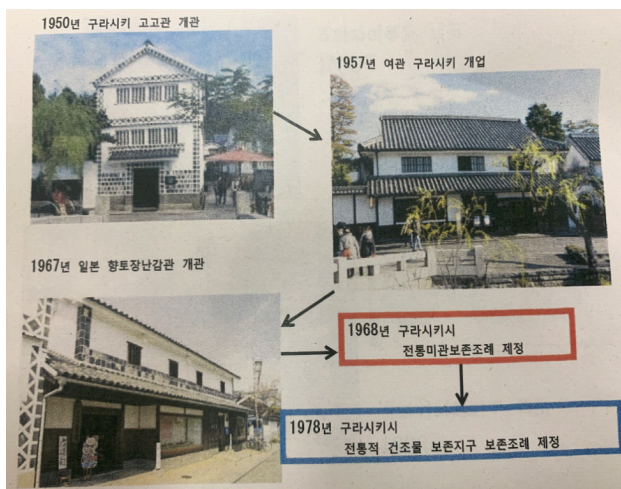
① 구라시킴시 미관지구

□ 일시 및 장소 : 2019. 3. 4(월), 미관지구 내 모노가따리관

□ 면담자 : Hujiwara Yosinori (구라시킴시 교육위원회 문화재보호과)

- 쿠라시킴 미관지구는 에도시대부터 메이지, 다이쇼 시대를 거쳐 쇼와 초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건물들을 볼 수 있는 전통가옥이 밀집한 지역임
 - 이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였으며,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에도시대에는 막부직할영지로서 주변지역에서 보내온 쌀이나 조공을 영주가 있는 곳으로 보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물자를 보관하는 장소였음
 - 특히 물자의 집산지였기 때문에 이 일대는 상업도시로 발전했고, 당시 운하 주변에는 물자를 가득 실은 배에서 물건을 내리는 사람, 물자를 운반하는 사람 등으로 활기가 넘쳤다고 전해짐
 - 그러나 메이지 시대 이후 수운업이 쇠퇴하고 운하 주변의 창고 겸 저택은 그 기능을 잃었으며 지역이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
- 쿠라시킴 미관지구는 ‘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’로 지정되어 경관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음
 - 1967년 시정촌통합 후 지역중심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1968년 市전통미관보존조례(미관조례) 및 市전통미관위원회가 만들어지고, 구라시킴 미관지구는 보존기념물로 지정됨
 - 1975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「전통적건물보존지구제도」가 제정되었으며, 1978년에는 구라시킴에서 「전통적건물보존지구보존조례」를 제정
 - 구라시킴시는 현재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 15.0ha, 전통미관보존지구 6.0ha가 지정·운영
- 또한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보존지구 내 빈집이나 고택을 재생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어 있음

- 구라시키 미관지구는 흰벽의 가옥의 거리, 오하라 미술관, 민예관이 모여 있어 문화관광지로의 집객효과를 높임. 이런 문화거리에 일조한 것은 오하라 마고사부로와 소이치로의 부자(父子) 노력이었음
- 이들은 1930년에 일본최초의 사립서양미술관인 오하라미술관 건립하여, 국내외 명화를 수집 및 전시. 1949년에는 구라야시키(창고떨린 저택)를 이용해 민예관과 도예관 등을 개설



<보존지구 제도 구축 과정>



<보존지구 구역 현황>

- 특히 1988년 건축가 나라무라 토오루를 중심으로 6명의 건축가가 “古민가 재생공방”을 결성하고, 버려져 가는 민가재생 건축 활동을 추진
 - 이러한 활동은 1999년 일본건축학회 학회상 등 수상하면서 민가를 활용한 건축장르 ‘古민가재생’을 정립. 2006년 구라시키 재생학원을 설립
- 2006년에는 ‘구라시키 전건지구를 지키고 가꾸는 모임’이 만들어져, 관광, 생활, 역사, 전선지중화 등 주민을 통한 마을만들기가 진행되기 시작
 - 2010년 JR구라시키역 주변 175ha를 대상으로 상공회의소, 상가, 민간사업자, NPO법인 등 다양한 주체의 협의를 통해 구라시키마을만들기주식회사 설립운영
 - 미관지구의 빈점포 활용, 중심시가지 활력거점 재생을 위한 구라시키 이야기관 주변재생사업 추진. 하야시약품지구, 나라망여관지구 등 20년 장기임대방식으로 추진. 대기업 MUJI와도 협업추진

- 이처럼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기존의 건물을 전시시설, 관광상점, 음식점, 숙박시설, 휴게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인구 40만 명의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게 됨
- 현재 고고관(考古館), 일본 향토 완구관(玩具館)이라는 이름의 작은 박물관은 에도시대의 쌀 창고를 개조하여 전시관으로 활용
 - 쿠라시키 아이비스퀘어라는 호텔은 1888년에 건축된 쿠라시키 방적공장을 개조한 것이고, 서양식 목조건물의 관광안내소는 1917년에 건축된 동사무소를 활용한 것임



<1930년 오하라 미술관 개관>



<1950년 구라시키 고고관 개관>



<1957년 구라시키 여관 개관>



<1967년 일본 향토장난감 개관>

○ 미관지구 전경

- 미관지구는 깔끔한 거리 구성과 미술관 등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, 소형 배를 통한 투어프로그램을 제공



<미관지구 전경 1>



<미관지구 전경 2>



<미관지구 전경 3>



<미관지구 전경 4>



<미관지구 전경 5>



<미관지구 전경 6(오하라 미술관)>

○ 미관지구 내 이야기관(모노가따리)

- 미관지구의 이야기관은 미관지구의 역사와 보존지구 지정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곳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해설을 제공하고 있음
- 특히 한국어, 중국어,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



<미관지구 이야기관 외관>



<미관지구 이야기관 입구>



<미관지구 이야기관 실내>



<미관지구 이야기관 영상매체>



<미관지구 이야기관 전시물>



<미관지구 이야기관 해설사>

○ 미관지구 청년창업 상가(쿠라시키 Craft work village)

- 쿠라시키는 지속적으로 거주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청년층의 유입을 위한 상업활동 지원을 추진 중에 있음
- 쿠라시키 Craft work village는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쿠라시키 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곳임
- 쿠라시카시는 리모델링 비용을 건축주에게 지원하는 대신 지역 청년창업가들에게 임대료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



<구라시키 크래프트 워크 빌리지 전경 1>



<구라시키 크래프트 워크 빌리지 전경 2>

- 이 상가는 마치야 트러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청년을 선정할 때 몇가지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
 - 첫째,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야하며, 둘째, 미관지구에 사는 이
유가 명확해야 하며, 셋째, 창업하려는 상점이 본점이어야 하며, 넷째,
미관지구의 외관을 유지해야 함



<구라시키 크래프트 워크 빌리지 창업공간 1>



<구라시키 크래프트 워크 빌리지 창업공간 2>

② 마치야 트러스트(NPO)

□ 일시 및 장소 : 2019. 3. 4(월), 미관지구 내 트러스트 사무실

□ 면담자 : Nakamura Yasunori(NPO법인 마치야트러스트 대표이사)

- 마치야 트러스트는 미관지구를 보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NPO라 할 수 있음
 - 마치야 트러스트는 미관지구가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환경보존 차원에서 시작
 - 지역 내에서 빈집이 많기 때문에 이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존재했으며, 지역주민들을 모아 같이 개발을 추진
- 마치야 트러스트는 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들이 잠을 자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
- 그동안 커뮤니티 FM(라디오) 등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홍보한 결과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트러스트의 활동이 지역과 쿠라시키시에 알려지게 되었음
- 그러나 13년 동안 이런 활동을 지역에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, 최근에 이 지역 관광지로 부각되면서 상업 활동에만 초점을 맞춘 지역주민들이 증가하여 커뮤니티 활동에 어려움이 존재
 - 특히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지역주민 및 청년층들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젠트리피케이션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
- 이로 인해 최근 마치야 트러스트는 상업활동은 제외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
 - 지역 학생들과 함께 길거리 고양이 사진을 촬영 및 전시하여 길거리 고양이 보호에 대한 지역주민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업을 추진

- 현재 커뮤니티 활동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적은편이나, 트러스트 대표를 중심으로 지역상인회, 보존지구위원회 사무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어 자신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
- 특히 미관지구 시가지협의회가 지역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,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개별 점포를 중심으로만 관리하고 있어, 전체 지구를 포괄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상황



<마치야 트러스트 사무실 전경>



<마치야 트러스트 사무실 실내>



<마치야 트러스트 회의 사진>



<마치야 트러스트 활동>



<마치야 트러스트 활동>



<마치야 트러스트 활동>

③ 아이비 스퀘어

- 쿠라시키 아이비스퀘어(Ivy Square)는 쿠라시키미관지구에 있는 호텔임
 - 에도시대의 막부대관소가 있었던 자리에 1889년 구 쿠라시키 방적공장을 건설하였으며, 1945년 공장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 일본 방적산업의 거점으로 발전
 - 조업이 중단된 이후 공장건물은 창고로 사용되다가 미관지구의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 부족 문제가 대두되어 방적공장 재개발이 결정



- 구 공장의 외관과 기본구조를 그대로 남기면서 재생하는 안이 채택되었고, 1973년 수리를 하여 숙박시설과 문화시설로 재생됨
 - 공장의 일부를 철거하여 중세 유럽의 사원이나 학교의 이미지를 한 광장이 있는 호텔로 건축
 - 호텔 내부의 광장은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,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음
 - 전체적으로 공장건물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업시설이 호텔로 재생되었으며,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일본건축학회상, 일본인테리어디자인상, 상업공간디자인상 등 많은 상을 수상
 - 2007년에는 근대화산업유산으로 인정을 받음



<아이비 스퀘어 전경 1>



<아이비 스퀘어 전경 2>



<아이비 스퀘어 전경 3>



<아이비 스퀘어 전경 4>



<아이비 스퀘어 실내 1>



<아이비 스퀘어 실내 2>

□ 시사점

- 일본의 지방도시는 저출산, 고령화 등에 따른 지역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전통 문화 및 자산들을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어 옴
- 구라시키시의 경우 전통가옥이 집적해 있는 미관지구를 보존하는 동시에 빈집을 활용하여 미술관, 호텔, 청년창업 상가 등을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- 공주시 또한 백제문화 및 금강 등의 다양한 문화·역사·자연경관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구라시키 미관지구의 사례를 공주시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,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
- 첫째,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기존 가옥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가옥의 경관을 보존하고 기존 골목을 잘 보존하는 것이 필요
 - 쿠라시키 미관지구도 기존 경관을 잘 보존한 채 실내를 리모델링하여 상업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
- 둘째, 공주시 내 활용가능한 빈집을 발굴하여 지역 미술관, 도서관,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이 필요
 - 아이비 스퀘어와 같이 기존 방직시설을 예술적으로 복원할 경우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 있음
- 셋째, 지역주민들이 지역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NPO나 사회적경제 조직육성이 필요
 - 미관지구의 빈집 재생은 지역주민 주도로 이루어졌던 만큼, 공주시에서도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직 발굴·육성 필요

2. 나오시마 : 베네세 및 세토우치 국제예술제

□ 나오시마초 개요

- 나오시마는 일본 세토내해(瀬戸内海)에 위치한 가가와현의 섬으로, 여의도면적(14.2km²) 정도로 인구는 3,139명. 미야노우라, 혼무라 등 4개 마을로 구성
 - 나오시마[直島]라는 지명은 호겐의 난[保元の乱]에서 패한 스토쿠천왕[崇徳天皇: 1119년~1164년]이 사누키[讃岐]에 유배되던 중, 이 도서에 잠시 들렀을 때 주민들의 순진하고 소박함을 높이 평가하여 명명하였다고 전래
- 나오시마의 면적은 14.23km², 주민은 1,533세대, 인구 3,206인(2013년 기준)으로 가가와현 내 16개 지자체 중 가장 인구규모가 작은 지자체임
 - 보육·교육기관은 보육소와 유치원을 통합한 나오시마유아학원, 소학교, 중학교 각 하나씩으로, 고등학교, 대학, 전문학교 등은 없음
- 나오시마는 1917년 설립된 나오시마 미쓰비시 제련소로 오랫동안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었으나, 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함은 물론, 불법적 산업쓰레기 투기사건으로 쓰레기섬이라는 오명이 붙게 됨
- 1960년대부터 제련업이 쇠퇴하면서 나오시마는 경제적·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인구감소를 경험.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나오시마정은 아트&교육 등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나, 오일쇼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음
- 1980년대 후쿠다케서점(현, 베네세)의 나오시마 개발(나오시마 문화촌 구상)을 발표. 당시 리조트개발법(1987년)제정과 정부지원을 기대. 1989년 나오시마 국제캠프장 오픈을 시작으로, 베네세하우스 뮤지엄 등 시설개관 및 운영추진

- 이 섬은 ‘예술 섬’ 으로 유명하며, 2008년 미국 여행잡지 ‘Traveler’ 에 세계에 가봐야 할 곳에 선정될 정도이며, 섬에는 지중미술관을 비롯해, 현대미술 작품이 즐비한 호텔 베네세하우스, 해변파크, 테시마미술관, 안도 다다오 뮤지엄, 이우환미술관 등이 설립
- 나오시마 섬의 공간적 구조는 북서쪽에 제련소가 위치하고 있으며, 서쪽에는 미야노우항을 위시로 한 집락촌과 복지센터가 위치하며, 그 반대편인 동쪽에는 혼무라[本村]라는 중심 집락촌과 행정사무소, 이에[家] 프로젝트지역이 위치
- 미야노우항과 혼무라 중간지역에는 학교시설들이 위치해 있으며, 남쪽에는 ‘베네세 아트 사이트’ 로 호텔과 미술관 등의 관광시설이 위치



□ 사례지역 인터뷰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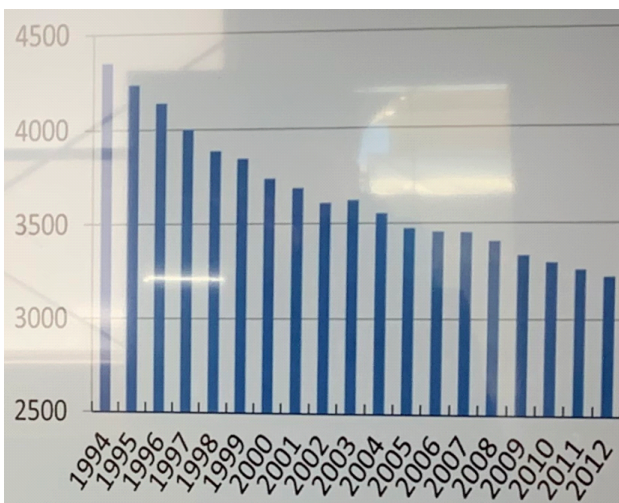
① 베네세(Benesse)의 이에 프로젝트

□ 일시 및 장소 : 2019. 3. 5(화), 나오시마 베네세하우스 사무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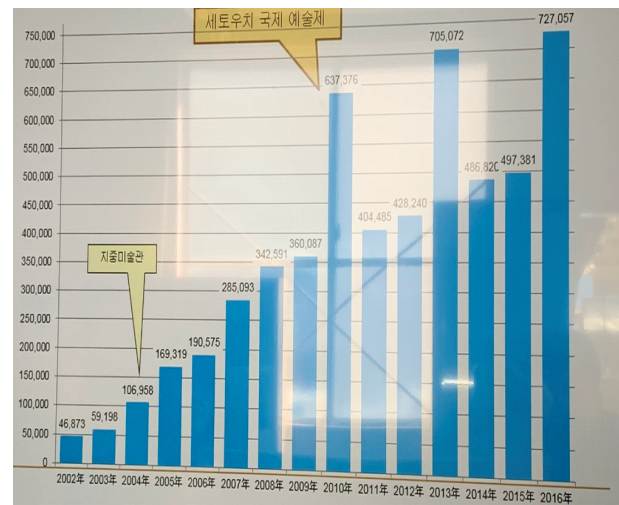
□ 면담자 : Kikuta Mistusi(베네세하우스 아트운영개발부)

○ 나오시마의 인구는 3,155명(2017년 1월)으로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, 최근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

- 나오시마의 관광객 수는 2004년 지중미술관 개장 이후 106,958명으로 증가해오다가 2010년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를 계기로 637,376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



<나오시마 인구 변화>



<나오시마 관광객 증가>

○ 외국인 관광객(2016년 베네세 하우스 숙박자 기준)은 유럽 37.3%, 북미 26%, 아시아 18.2%를 차지하며 한국은 7.3% 수준

- 외국인 중 미국인 23.9%, 오스트레일리아 10.7%, 프랑스 9.8% 수준이며, 한국은 4위 수준

○ 베네세(Benesse)는 1980년 후쿠다케 소이치로 회장이 기업의 새로운 브랜드 구상과 연계하여, 나오시마를 예술의 섬으로 재생하고자 함

- 베네세는 1995년 후쿠다케 서점에서 베네세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며, 베네세는 잘 살기라는 뜻임
- 베네세는 자연과 예술·건축, 사람을 콘텐츠로 잘살기를 생각하고 체험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함
- 베네세는 이러한 가치를 토대로 ‘있는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’에서 ‘있는 것을 살려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’으로 전환

○ 현 베네세 회장은 창업자인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받아 나오시마 섬을 재건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

- 당시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이었던 세토내해 섬들이 산업폐기물로 황폐화돼 가고 있었음. 베네세는 폐허가 된 구리제련소 부지를 사들인 뒤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섬을 되살리고자 노력함



<베네세 사무실 전경>



<베네세 사무실 내부>



<나오시마섬 주요 시설물 위치도>



<베네세하우스 전경>

- 2004년 나오시마 후쿠다케 미술관 재단은 안도 다다오, Claude Monet, James Turrell, Walter De Maria 등 4인의 예술가를 중심으로 지중미술관을 설립
- 2006년에는 베네세 하우스 파크를 안도다다오가 설계하하였는데, 외부인들이 나오시마에서 천천히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건축에 반영



<나오시마 섬 전경>



<나오시마 섬 투어버스>



<나오시마섬 주요 시설물 위치도>



<베네세하우스 전경>



<나오시마 섬 상징물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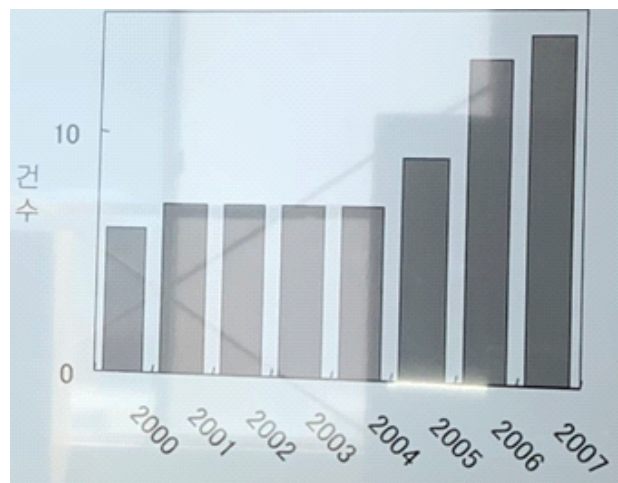


<나오시마 섬 상징물>

- 특히 항구와 베네세 하우스 인근에 조형물인 호박을 설치하여 사진만으로도 나오키마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함
 - 이 호박은 예술가 ‘쿠사마 야요이’의 작품으로 나오키마의 지역특산물과 관련이 있기 보다는 예술가가 호박을 주제로 예술활동을 해왔기 때문
- 지역 내에서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나, 대부분 외지에서 온 청년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. 지역 주민들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주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
 - 실제 이에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파트 타임이 주를 이루고 있어, 주부 또는 노인 일자리의 일부를 해소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은 좋지 못한 상황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프로젝트를 통해 나오키마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하는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



<나오키마 상가 전경>



<나오키마 상가수 증가>

○ 나오시마 이에 프로젝트

- 1990년대 후반부터 나오시마의 남부 베네세 소유지에서만 전개하던 활동을 나오시마의 역사와 지역주민과 함께 진행하게 됨.
- 1998년 빈집 활용한 예술 프로젝트:이에(家)프로젝트이며, 지역노령자가 살던 집 매각상담이 계기가 됨
- 이에 프로젝트의 시작은 처음 나오시마 섬 자체가 관광객 수가 적어서 보존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. 나오시마에 한 빈집이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베네세에 구매를 요청했으며, 이를 구매하여 기존 집을 리모델링하여 예술 작품화 함
- 이에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단에서 마련했는데 베네세의 주식배당금으로 수행함
- 지역에 돌아온 청년은 다수가 있는데, 전반적으로 인구의 감소세는 보이고 있으나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음



<고오신사 전경 / 2002>



<긴자 전경 / 2006>



<이시바시 전경 / 2006>



<하이샤 전경 / 2006>



<고카이쇼 전경 / 2006>



<아이러브유 전경 / 2009>



<안도 다다오 미술관 전경>

② 세토내해 국제문화제 추진단

□ 일시 및 장소 : 2019. 3. 5(화), 다카마쓰 추진단 사무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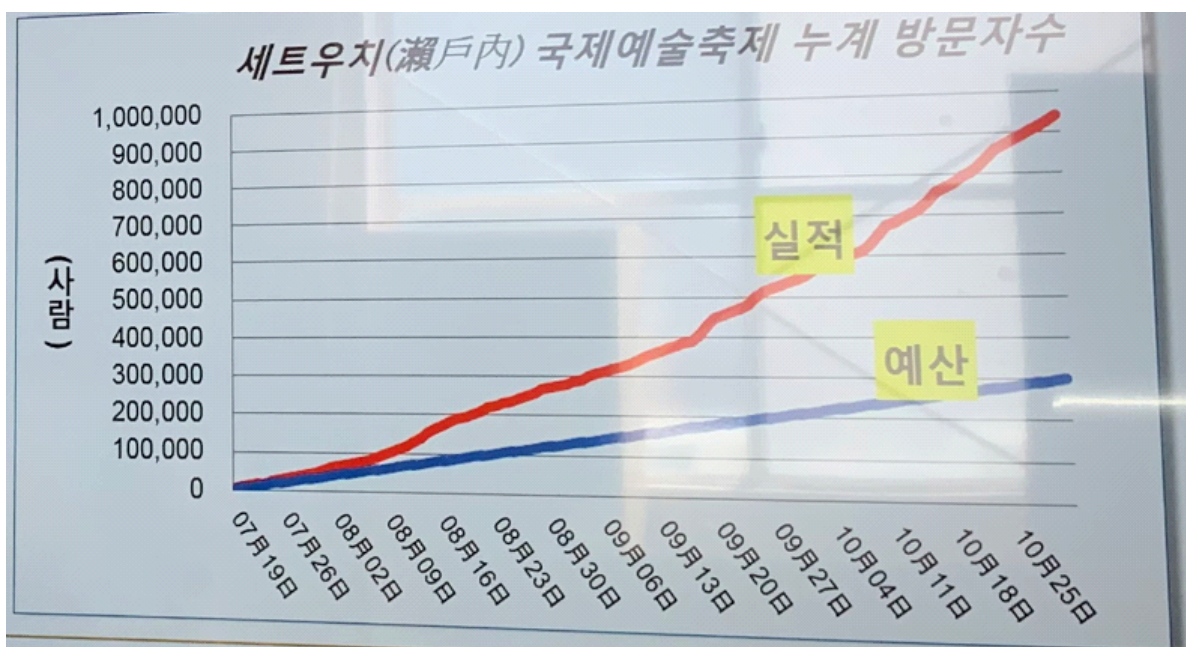
□ 면담자 : Ishiduka Hirofumi, Watanabe Mayu(가가와현 세토우치국제예술제추진과)

○ 초창기 베네세의 나오시마 문화예술 활동은 관광개발, 즉 휴양리조트의 개념이 강했으나, 1998년 이에프프로젝트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발해짐. 이를 기반으로 나오시마 전람회 스탠다드전(2001,2006)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로 발전

-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3년주기로 2010년부터 가가와현의 다카마쓰항과 나오시마 및 주변 7개 섬에 아티스트의 작품을 자연 속 설치, 빈집 작품화 및 전시 등 추진
-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지역활성화의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으면서 나오시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짐



-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2010년 7월 19일- 10월 31일까지 약 100일간 개최되었으며, 세노나이카아의 7개 섬(나오시마, 도요시마, 메기시마, 오기시마, 쇼도시마, 오시마, 이누지마), 다카마쓰에서 실시
 - 국제예술제는 세토나이 국제예술제 실행위원회에서 주최하였으며, 종합프로듀서로 후쿠다케 소이치로, 종합 디렉터 기타가와 후라무가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
- 2010년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방문자수만 938,246명에 달함



-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3년 단위로 추진하는 예술 축제로 배를 타고 섬을 일주하면서 예술 작품을 보는 방식
 - 12개 섬이 참여하고 있으며, 우노 항과 다카마쓰 항이 주요 행사장임
- 2016년 국제예술제는 226개 사가 참여하였으며, 104만 명이 방문 함
 - 자원봉사자는 1만 명이 참여하였으며, 지역홍보단, 기업·대학 등 참여
 - 약 139억 엔의 파급효과를 본 것으로 추산되며,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

- 행사를 3년 마다 개최하는 것은 준비 시간과 예산의 문제에 따라 3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
- 추진단의 소속은 현과 시, 베네세 등에서 파견을 나왔으며, 재원은 지자체 30%, 지역기업·기부금 30%, 입장권 및 보조금 40%로 이루어짐
- 예술가들의 참여는 국제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, 종합 디렉터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세계에서 예술가들에게 홍보
- 행사장이 분산되다보니 섬 지역별로 관광객들이 나오시마와 테지마에 집중되고 있는데,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며 유명한 작품을 여러 섬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음
- 국제예술제의 성공요인은 종합 디렉터의 역량과 남아 있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벤트를 개최하여 사람들이 계속 방문하게 만드는 것임
 - 국제예술제는 유명한 아티스트의 참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디렉터가 명성있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 - 또한 축제가 개최되고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향후 국제예술제가 다시 개최되더라도 성공할 수 있음
- 국제예술제의 홍보는 홈페이지,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, 세계적으로 기획발표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하고 있음
- 국제예술제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문제임. 축제가 주민들의 삶과 연계되지 않고 관광객들의 방문이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축제가 지속되기 어려워짐
- 따라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여, 축제에 대한 인식과 영향정도,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

- 기업 CSR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현재는 팜플렛에 협력기업 이름을 넣는 수준임. 그러나 예술제가 널리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자발적 후원이 늘고 있는 만큼 예술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임
- 예술제를 통해 인구감소를 방지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음
 - 별도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없지만, 예술제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섬에 대해 인식이 바뀌는 것을 실제로 봄
 - 청년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예술제를 통해 섬에 지내다 보면서 경관과 볼거리, 어르신들과의 관계 등을 통해 섬에 살고 싶은 인식 변화가 생김
 - 일부 자원봉사자는 매년 할머니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있음



<국제예술제 추진단 사무실>



<국제예술제 추진단 사무실>



<국제예술제 추진단 사무실>



<국제예술제 추진단 사무실>

□ 시사점

- 나오시마의 사례는 공주시의 교류인구 유치를 위한 방식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고 있음
- 첫째, 지역 연고기업의 CSR과 연계하여 공주시의 자산을 활용한 거점 시설 (미술관, 박물관 등) 조성 필요
 - 공주시의 백제 문화와 현대 미술 등을 융합한 박물관 조성
- 둘째, 공주시 내 빈집이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건물들을 예술 작품화하여 공주시의 관광거점으로 조성 필요
 - 단순히 건물 내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, 나오시마의 사례처럼 건물 자체를 수준 높은 예술작품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
 -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지역재생의 차원에서 사회성을 강조하여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
- 셋째, 백제문화제 및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등의 운영을 3년 단위로 조정이 필요하며, 국제 예술가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
 - 세계적인 디렉터의 참여를 통해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의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서는 개최 기간의 조정이 필요
- 그러나, 나오시마의 사례에서도 한계가 존재하는데 베네세라는 대기업의 의존성이 과도하게 강한 것과, 예술관광산업의 근로형태가 비정규직, 단순노무직, 낮은 임금수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
 - 낮은 수준의 일자리는 결국 해당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전출자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근로형태가 조성되어야 함

3. 마니와 : 바이오매스 및 중화지역 산촌자본주의

□ 마니와시 개요

- 오카야마현 북중부 위치하고, 돗토리현과 경계를 접하는 시
 - 면적 828km²으로 현내 최대
 - 2005년 오치아이정, 가쓰야마정, 구세정 등 9개의 정촌이 마니와시로 통합
- 마니와시 인구는 2019년 현재 45,565명(남자 21,806명, 여자 23,759명)으로 고령자비율이 36.6%에 달하는 지역임
 -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자연적 감소와 사회적 감소가 모두 발생하고 있는 상황

<표> 마니와시 인구이동 현황(2019년 2월 기준)

구분	자연적 증감			사회적 증감			기타 이동수
	출생	사망	증감수	전입	전출	증감수	
총계	11명	69명	-58명	58명	71명	-13명	1명
남자	5명	30명	-25명	25명	29명	-4명	1명
여자	6명	39명	-33명	33명	42명	-9명	0명

- 북부는 히루젠 고원 등 고원지대로 겨울은 눈과 추위가 심한 편이고, 남부는 온화하고 비가 적은 편임.
 - 토지이용은 산림 79.2%, 전답 8.2%, 택지 1.7%임



- 마니와시 북부지역은 히루젠 고원을 중심으로 낙농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, 온천 등 관광업이 발달
 - 히루젠은 소 유제품(우유, 치즈 등)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며, 유바라 온천, 거리 보존지구, 히루젠 휴양지 등으로 관광지가 발달
- 중남부 지역은 농림업이 발달해 있는데, 특히 양질의 삼나무·노송 나무를 생산하는 임업은 오래부터 지역의 중추 산업임
 - 현재에도 많은 벌목 사업자 및 목재 가공 회사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, 마니와시는 목질 바이오매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특화 추진



<마니와시 북부지역>



<마니와시 중남부지역>

□ 사례지역 인터뷰 결과

① 마니와시 바이오매스

□ 일시 및 장소 : 2019. 3. 6(수), 마니와시청 회의실

□ 면담자 : Miyamoto Akiyuki(마니와시 종합정책부 종합정책과)

Ikeda Naoyoshi, Kaneda Yasushi(마니와시 종합정책부 교류정주추진과)

○ 마니와시는 오카야마현 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돗토리현과 인접

- 9개 마을이 합병해서 만들어졌으며, 각 마을별로 다양성이 존재

○ 마니와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며, 1995년 5.6만명에서 2015년 4.6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



<마니와 시청사>



<마니와 시청사>



<마니와시 관계자 회의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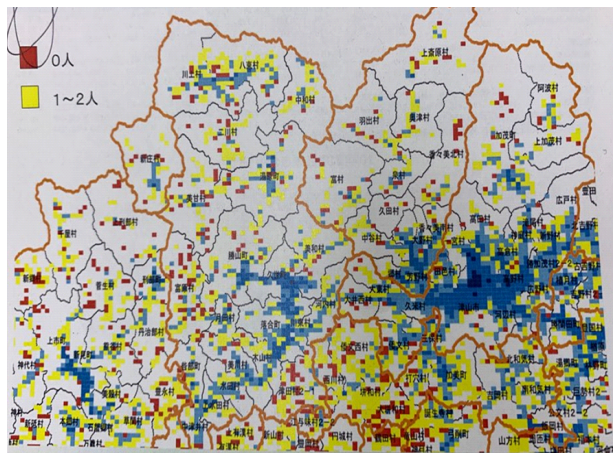
<마니와시 관계자 회의>

○ 마니와시는 인구감소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, 특히 작년에 인구감소가 커서 충격을 받음

- 전체 GRDP는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체 산업의 22%를 차지하고 있는 임업이 고용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
- 마니와시는 고령자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
- 영유아가 없는 마을(빨간색 점)도 다수를 차지



<마니와시 연도별 인구변화>



<마니와시 지역별 영유아수>

○ 마니와시는 지역이 넓은 만큼 지역별로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며, 이로 인해 시정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자발성을 강조

- 시책 추진시 지역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

○ 마니와시는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촌자본주의를 모토로 ‘산림 바이오 매스 산업’ 육성을 지역특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음

- 마니와시는 지역기업 및 주민들이 벌목해 온 것을 임업협동조합에서 구매·가공하고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을 통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음

- 마니와시의 인구감소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, 특히 마을 단위에서 학교가 폐교되는 등으로 인해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
-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지자체에 마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
 - 일부 지역에서는 폐교를 통해 마을을 되살리고자 지자체에 야마고 생선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을 요청하였고, 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되었음
 - 고령화율이 심각한 지역인 중화지역에서도 중화마을만들기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 위기를 강조하고 있으며, 젊은 층들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음
- 마니와시가 바이오매스로 특화하는 것은 단순한 인구정책을 넘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총괄적인 순환모델임
 - 이를 통해 환경과 지속가능한개발을 달성하는 지역이라는 브랜드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
 - 나아가 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



<마니와시 별목 가공 공간>



<마니와시 별목 가공 공간>



<분쇄기 전경>



<나무 분쇄기>



<일반 연료용 분쇄물>



<일반 연료용 분쇄나무 창고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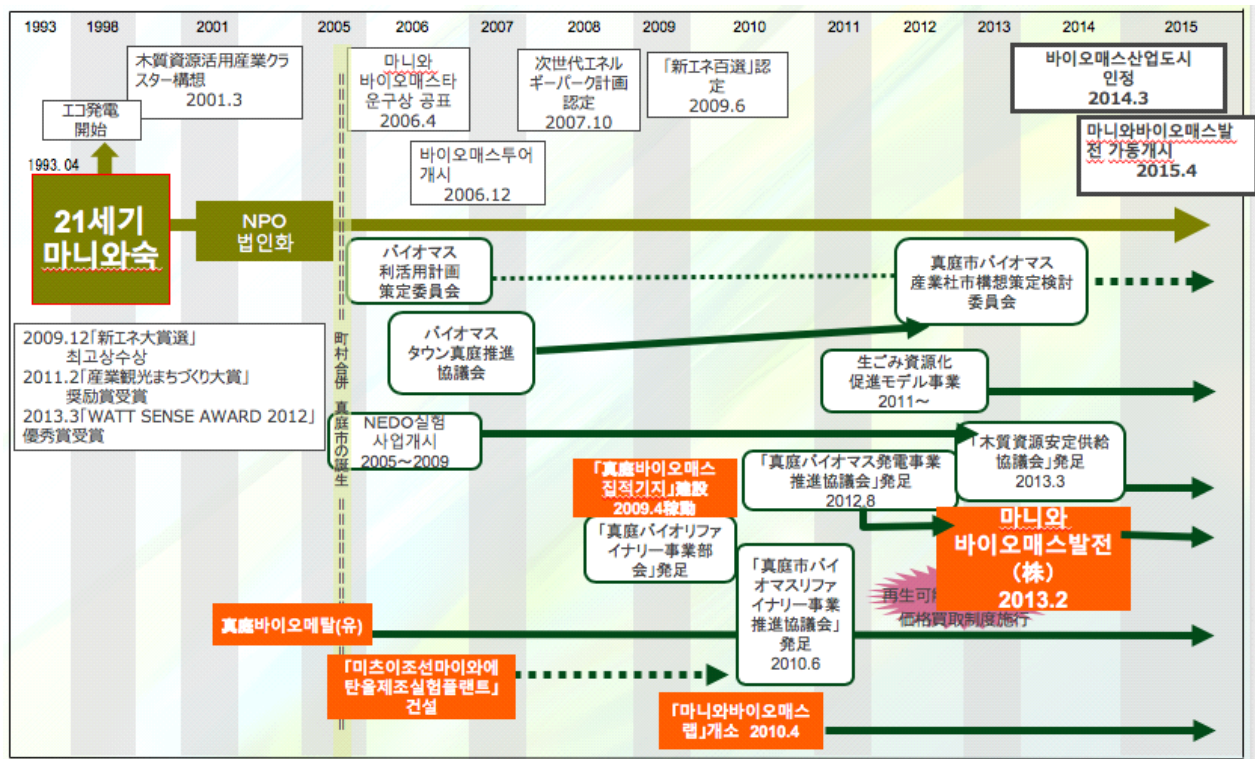
<화력발전소용 잡목>



<화력발전소용 분쇄물>

○ 목재 활용 화력발전소

- 발전능력: 10,000kw/h, 이용연료: 106,000 t /년 가동률 : 98.5 %
- 발전량: 약 82,000Mwh, 운전일수: 330일/년
- 운영: 마니와바이오매스발전(주): 지역10단체로 구성된 회사
- 경제성: 매출액 23억엔, 연료구입: 13.5억엔(※지역조달→ 신산업탄생),
- 석유대체효과: 21.5억엔상당
- 고용: 50명(발전소 15인, 임업관계 35인)
- 에너지자급률 11.6% → 약 32%로 증대
- 마니와시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바이오매스산업의 흐름





<발전소 사무소 전경>



<발전소 전경>



<발전소 연료 보관 창고>



<발전소 설비 전경>



<CLT 생산공장 전경>



<목재 연료 폐기물 전경>

② 중화 마을만들기 위원회

□ 일시 및 장소 : 2019. 3. 7(목), 예가오 상점

□ 면담자 : Ohmi Yasuo, Dohi Mayumi(중화지역만들기위원회)

○ 중화지역은 605명 규모의 마을로 대합병 때 마니와 시에 통합

- 현재 605명, 252세대가 살고 있으며, 고령화는 46% 수준
- 중화지역은 별도의 산업은 없으며, 봉제산업이 일부 있었으나 작은 규모
- 레저·관광(스키장, 캠프장) 등으로 영위

○ 중화지역의 연혁

- 1872년 774명(일본 전체 3,300만) → 1877 중화초등학교 설립 → 1889년 1,027명 → 1929년 1,329명 → 1934년 대홍수 발생 → 1940년 1,555명 → 1950년 1,780명으로 지속 증가(증가의 이유는 전쟁 이후 식료품을 구하러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기 때문)
- 1960년도 이후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1960년 1,480명 → 1970년 1,115명 → 1974년 쓰구로 호텔 오픈 → 1980년 1,026명 → 1986년 공장유치 및 스키장 유치 → 1987년 버블붕괴로 대형 인프라 사업 포기 → 1990년 923명 → 1993년 자립적 인구활성화 노력 모색
- 1994년 중화마을 정주·이주 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중화마을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
- 2005년 마니와시에 합병되면서 중화지역이 탄생하게 되었고,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675명으로 감소
- 2014년 NPO와 함께 마니와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, 산촌자본주의를 위한 사업을 추진

○ 이러한 일환으로 중화마을만들기 위원회는 지역내 8개 조직의 대표 21명이 모여 만들었음

- 위원회의 활동 목적은 지속가능한 매력있는 마을 만들기임

- 이 활동은 ‘할 수 있는 사람이, 할 수 있는 것을, 할 수 있는 만큼’ 이라는 모토로 마을 활동을 추진

〈 중화생기활력프로젝트: 3대 프로젝트 〉

- 장작프로젝트: 유턴청년을 중심으로 자원활용 및 지역경제순환
- 마니와생업(なりわい,나리와이)학교: 도시청년 지역라이프스타일 경험
- 텃밭야채프로젝트: 텃밭야채를 같이 출하하면서 동료 커뮤니티 구축

- 산촌자본주의는 지역의 나무를 지역주민이 벌목하여 중간조직인 ‘아시타카’에 납품하고 ‘아시타카’는 이 나무를 임업업자 및 발전소에 판매함으로써 지역의 순환경제를 창출
 - 아시타카는 과거 유통업에 종사하던 지역 청년이 만든 것으로 현재의 산촌자본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핵심
- 또한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는 만큼 일정 수의 젊은 층을 유입하게 함으로써 초등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. 바로 ‘생업학교’임
 - 생업학교는 도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간 교육 및 현장 경험을 쌓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임
 - 매년 25명씩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4기가 운영 중임
- 생업학교는 도시인 계층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교육을 추진
 - 첫째, 농업을 할 사람
 - 둘째, 지역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
 - 셋째, 지역자원을 가지고 창업할 사람
-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노인들은 직접 가르치며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며, 교류관계를 통해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이 완화되고 지역에 대한 자존감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

○ 특히 마을 내 빈집을 조사하였는데, 전체 가옥 수의 23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 중 사용할 만한 것이 15개에 달했음

○ 이 빈집조사가 의미있었던 것은 생업학교의 교육생이 직접 빈집조사를 하고 살 수 있는 곳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이주로 유도했다는 점임

- 특히 정주 안내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5명이 지역특성, 매너 등 염두에 두어야 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거주를 수월하게 함



<위원회 사무실 전경>



<위원회 사무실 전경>



<위원회 사무실 내부>



<위원회 회의 전경>

③ 마니와 광역폐기물 리사이클링 사업 협동조합

- 일시 및 장소 : 2019. 3. 7(목), 마니와 광역폐기물 리사이클링 시범단지
- 면담자 : Fujita Hiroshi(생활환경부 환경과), Yamaguchi Hiroshi(마니와광역폐기물리사이클사업협동조합)
- 마니와에서는 쓰레기(분뇨)로 비료 및 에너지를 만들고 있음. 이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임
 - 마니와시는 쓰레기가 연간 14,000톤, 20억 원이 소요
- 마니와시 폐기물 감량 등 심의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저감 등을 위한 액비화를 위해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본격적인 단지를 2020년에 설치할 계획



<리사이클링 시범단지>



<리사이클링 시범단지 설비>



<리사이클링 시범단지 설비>



<리사이클링 시범단지 설비>

④ 목재 마을 거리

- 이 지역은 과거 중심시가지로 전통 가옥의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, 마을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로렌을 직접 제작하여 입구에 설치



<전통마을거리>



<전통마을거리>



<전통마을거리 로렌>



<전통마을거리 로렌>



<전통마을거리 로렌>



<전통마을거리 로렌>

□ 시사점

- 마니와시는 ‘산촌자본주의’를 토대로 지역 순환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음
 - 마니와시는 공공건물의 건축에 지역 목재를 활용하고 있으며, 지역 내 관광지에서도 목재를 활용하여 도시의 특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음
 - 또한 목재 화력발전소를 설치하여 지역 목재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서 브랜드화 하고 있음
- 공주시도 지역의 브랜드인 밤, 백제문화, 금강 등을 토대로 지역의 순환경제체제를 만들 수 있는 큰 비전이 필요
 - 공주시 지역의 문화·역사, 산업·경제 등과 융합할 수 있는 지역 모델 발굴이 매우 중요
- 중화지역 마을만들기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문제인식에 기반한 자조적 활동으로서 시민사회 및 주민 활동이 미흡한 공주시가 참고할 만한 사항임
 - 중화지역 마을만들기 위원회는 소멸위기에 있는 마을을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자조적 노력으로 생업학교, 빈집 이주지원 등은 벤치마킹할만한 사항임
- 공주시도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해 도시민들과의 관계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, 빈집 이주지원 확대를 통해 도시 청년층의 유입 강화 필요
 - 생업학교는 공주시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도시민들이 6개월~1년 정도 살아보고 이주를 결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임
 - 또한 생업학교 활동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공주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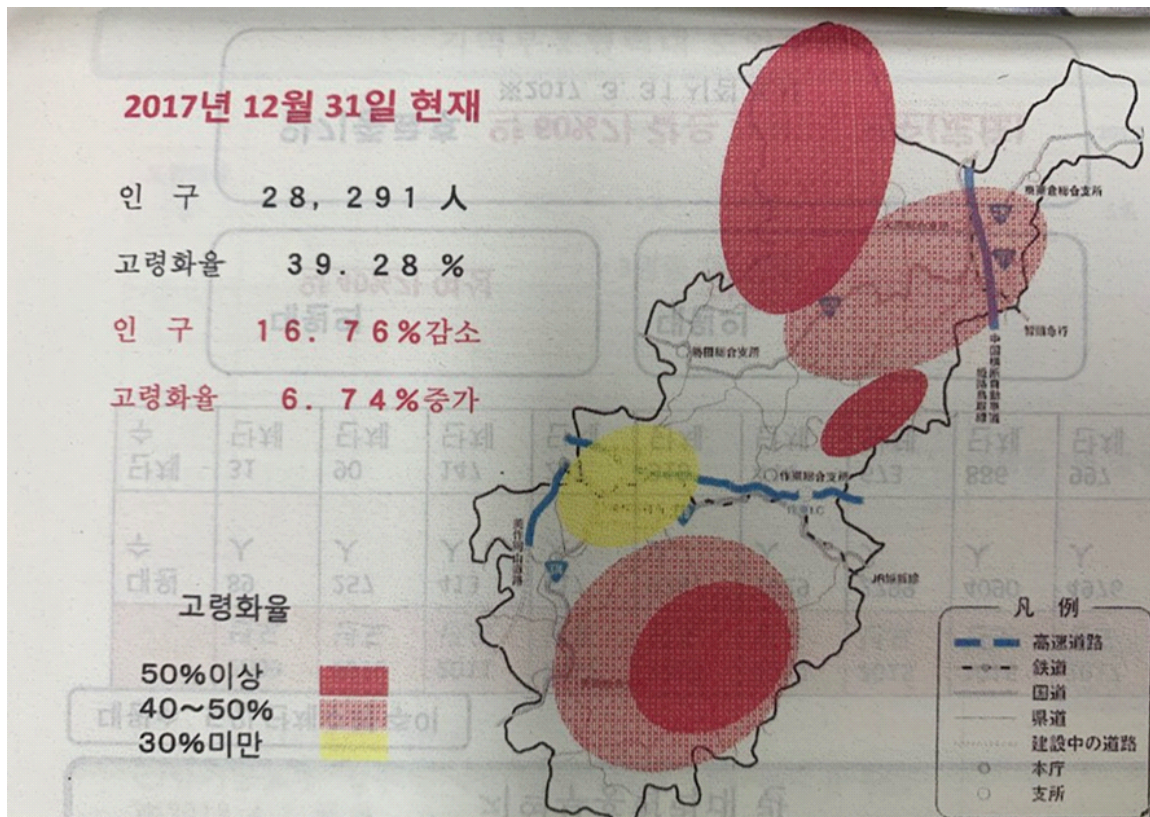
4. 미마사카시 : 빈집 활용 이주정책

□ 미마사카시 개요

- 미마사카시는 오카야마현과 효고현과 경계에 위치
 - 면적 429km², 인구 27,812명, 세대수 12,355세대
 - 미마사카시는 무사시의 마을로 관련 도장과 시설이 입지해 있으며, 서일본 제일의 유노고온천지로 유명



- 미마사카시는 2017년 12월 현재 고령화율 39.28%이며, 북부지역은 50% 이상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
 - 2005년 인구 33,989명, 고령화율 32.54% → 2017년 12월 28,291명, 고령화율 39.28%로 인구 16.8% 감소, 고령화율 6.7% 증가
 - 미마사카시 북부지역으로 갈수록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있음



<미마사카시 고령화율 현황>

□ 사례지역 인터뷰 결과

□ 일시 및 장소 : 2019. 3. 8(금), 미마사카시청 회의실

□ 면담자 : Komori Masato, Hirata Risa(기획진흥부 기획정보과)

○ 미마사카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크게 세가지 지원정책을 추진

○ 첫째, 빈집정보은행(2010년)

- 입주 가능한 빈집을 홈페이지에 상세한 정보(사진 포함)를 제공하며, 입주결정까지 지원하는 사업임
- 빈집정보에 등록가능한 건물은 미마사카시내에 있으며, 현재 비어있는 집(또는 이후 비게 될 집)으로 거주가능한 가옥임

- 미마사카시에 등록신청할 때 택지건물매매업자와 중개계약을 하지 않은 집이어야 하며, 빈집소유자가 복수일 때는 등록시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
- 빈집의 등록은 고정자산세의 납부서에 PR카드를 동봉하여 홍보
- 현재 약 31건이 등록되었으며, 계약건수는 13건 정도

岡山県の不動産情報は住まいる岡山が最強！

住まいる岡山 不動産情報サイト
http://www.ok-smile.jp

HOME | 住まいる岡山について | 不動産Q&A | 借り方ガイド | 貸し方ガイド | お気に入りリストでみる |

住まいる岡山(すまいるおかやま)は、岡山県下最大規模、約1700社(全不動産会社の99%)が加盟する(一社)岡山県宅地建物取引協会、(一社)岡山県不動産協会が共同で運営する不動産サイトです。岡山市・倉敷市・津山市・三好市・笠岡市・旭州市などの不動産(土地・一戸建・新築/中古マンション・賃貸マンション/アパート)情報が満載!

浴室・トイレ・洗面リフォーム済の物件

写真をクリックすると拡大します。

物件概要	
所在地	岡崎市 北區
交通	近所線 増原駅 徒歩42分
価格	150万円
築取り	SDK
土地面積	公簿275.23m ²
建物面積	90.87m ²

미마사카시는 정주민구 증가와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, 오카야마현 빈집정보유통시스템을 이용한, 미마사카시의 빈집정보제공에서 입주결정까지 지원하는 「미마사카시 빈집정보은행제도」를 정비하고 있습니다.

○ 둘째, 체험주택임대사업(2011년)

- 체험주택을 도입하게 된 경위는 빈집은행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등록건수가 잘 늘지 않았으며, 입주자와 매매자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
 - 매매자 의견 : 선조들이 물려준 토지와 가옥을 팔고 싶지 않다. 매년 몇차례 귀성하기 때문에 팔고 싶지 않다. 빌려는 주겠지만 개수비용을 내고 싶지 않다.
 - 이주자 의견 : 구입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임대를 찾고 있다. 임대는 상하수도 완비, 즉시 입주가 가능해야 한다. 지역에 쉽게 정착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등임.
- 이에 미마사카시는 일단 이주자들이 6개월에서 1년 가량 살아볼 수 있도록 빈 집을 리모델링하여 이주자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

- 현재 체험주택 3개동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임대료는 월 2~3만엔으로 6개월~1년간 이용이 가능함
- 입주자는 시와 지역주민의 협의로 선정하며, 그 조건은 이주희망자이며, 자치회활동 등 참가의사가 있고, 1명이상 상시체류 가능한 자
- 체험주택은 4월부터 계약직 공무원이 고용되면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중



<체험주택 1호 전경>



<체험주택 1호 실내>



<체험주택 1호 부엌>



<체험주택 1호 화장실>



<체험주택 2호 전경>



<체험주택 2호 실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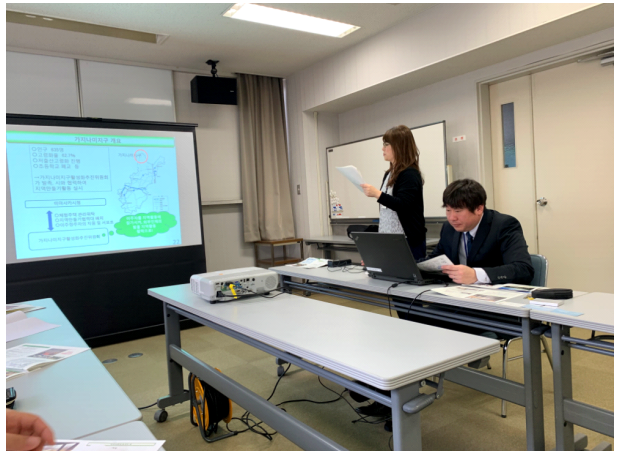
- 카지나와 위원회에서 체험주택을 관리하는데 이 위원회는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여 총 16명으로 구성. 곤약 및 소바 만들기, 체험주택 관리를 수행

○ 셋째, 이주정주촉진보조금(2012년~)

- 이주정주촉진보조금은 3인 가족(30대 부부와 초등학생)이 주택구입·신축·리모델링 시 최대 750만원을 보조해주는 제도임
- 대상은 전입자, 빈집소유자, 귀향자임
- 30대 이주자가 왔을 경우 미마사카 시에만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위치에 따라 쓰야마 지역이나 오카야마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음
- 2016년 실적: 신축 9건 대상, 630만엔 등 총 22건 1308만엔 지급
- 2017년 실적: 신축 14건 대상 920만엔 등 총 22건 1358만엔 지급



<미마사카시 회의 모습>



<미마사카시 회의 모습>



<미마사카시 청사 전경>



<미마사카시 청사 전경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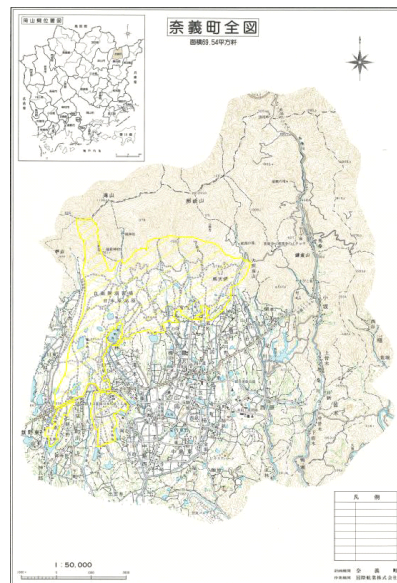
□ 시사점

- 미마사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주택임대사업은 공주시에서도 적용할 만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
 - 귀농·귀촌 의지가 있거나 향후 고려할 생각이 있는 도시민들이 1년 정도 공주시에서 생활하면서 지역문화를 습득하고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
 - 특히 이주하지 않더라도 공주시에 대해 친밀함을 느끼는 관계인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
- 또한 체험주택의 관리를 지역주민이 만든 조직에 위탁함으로써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
 - 카지나와 위원회에서 체험주택을 직접 관리하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
 - 나아가 이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이주를 모색하는 도시민들의 이주를 촉진할 수 있음

5. 나기정 : 주거정착 및 육아지원

□ 나기정 개요

- 나기정은 오카야마현의 동북단의 효고현의 경계에 위치
 - 나기정은 면적 69.5km²로 3촌의 합병에 의해 형성
 - 2002년 합병추진 여부의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단독정제(単独町制)를 결정하고 오늘날에 이름
- ※ 주민투표에 의한 단독정제는 육아지원정책 추진근거



- 나기정은 인구 5,903명(2018년 10월), 고령자 34.4%로 인구감소지역임
 - 지역 내 보육원 · 소학교 · 중학교가 각각 1개소, 유치원 2개소, 육아지원시설 1개소가 운영 중
 - 평성대합병시기에 합병하지 않고 단독행정을 선택하여, 이를 위한 행재정적 개혁전략을 추진. 고령복지 육아지원에 약 1억4 천만원 조성
- 에도시대부터 전승되는 현무형민속문화재인 요코센가부키 등 무형자산과, 국정공원인 나기산 및 나기쵸 현대미술관 등 유형자산 등이 존재함

□ 사례지역 인터뷰 결과

□ 일시 및 장소 : 2019. 3. 8(금), 나기정 회의실

□ 면담자 : Kaneda Tomomi(나기정 총무과), Sasaki Nobue(나기정 정보재정과)

- 나기정의 인구는 2015년 6,221명 → 2016년 6,226명 → 2018년 5,99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, 출산률은 2.3명대
 - 2018년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자위대의 병력이 200명 정도 이동했기 때문
- 합병당시의 인구를 유지한다는 목표로 ①주택시책, ②일자리 확보시책, ③육아지원시책 등 세가지 시책을 추진
- 주택시책은 분양지 정비, 청년주택, 주거정착촉진주택의 등 대상별 거주 정비
 - 분양지 정비: 경관이 좋은 토지 분양지 조성(87구획중 81구획 판매완료)
 - 청년주택: 육아세대를 위한 단독·임대주택 제공(2011년~)
 - 거주정착촉진 주택 : 60호 중 59호 입주, 월세는 22만원에서 30만원 수준



金剛田団地



御崎野団地



つくし団地



西ノ谷団地



西谷団地



豊沢中央団地

유쓰 메종 나기



그린 빌리지 나기



파크 사이드 나기



입주율100%
21호 전체 만실
월세:시세의 약70%

센터 빌리지 나기

2015년1월 취득:거주정착 촉진주택(60戸)



입주율 98%
60호 중 59호 입주
나기초내→나기초내: 22세대
나기초외→나기초내: 37세대
월세: 1~2층 30,000엔
3층 25,000엔
4~5층 22,000엔

○ 19획의 산업단지 기업유치 추진 및 조성



<나기정 청사 전경>



<나기정 육아독려 현수막>



<나기정 회의실>



<나기정 회의실>

- 나기정은 육아비용 지원과 관련한 무임승차자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 추진
 - 나기정 내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학비 일부를 나기정에서 지원하고 있음
 - 또한 도시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다시 귀향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실시
 -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어쩔 수 없지만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정에서 할수 있는 차원의 일을 추진하고 있음

- 나기정에는 자위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다양한 국가 보조금이 지원
 - 이러한 예산으로 그동안 도로와 수도 정비에 쓰였고 남은 돈으로 거점 시설들을 만들어 왔음
 - 그러나 주민들은 인프라보다 육아, 돌봄과 같은 것에 예산을 사용하기를 원해 육아 및 복지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

- 나기정 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였고 현재 19획에 기업을 유치하였음. 이 기업들은 플라스틱 등 부품기업이 주를 이룸
 -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부지매입비를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

- 나기정은 ‘차일드 홈’이라는 육아맘 대상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·운영하고 있는데, 단순히 아이돌봄 시설이 아니라 육아로 고생하는 엄마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음
 - 유치원에서 끝난 아이들이 이 차일드 홈에 와서 놀기도 하지만, 육아로 지친 엄마들이 서로 대화와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육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가 높다고 함



<차일드 홈 전경>



<차일드 홈 실내>



<차일드 홈 실내>



<차일드 홈 실내>



<차일드 홈 프로그램>



<차일드 홈 외부 놀이터>

○ 나기산 로쿠 야마 노 에키

- 나기산의 역이라 불리는 이 곳은 숙박시설로서 마을주민들의 고용창출 및 소득원으로 활용되고 있음



<야마노 에키 관리사무소 전경>



<야마노 에키 관리사무소 전경>



<야마노 에키 관리사무소 전경>



<야마노 에키 숙박시설>



<야마노 에키 관리사무소 입구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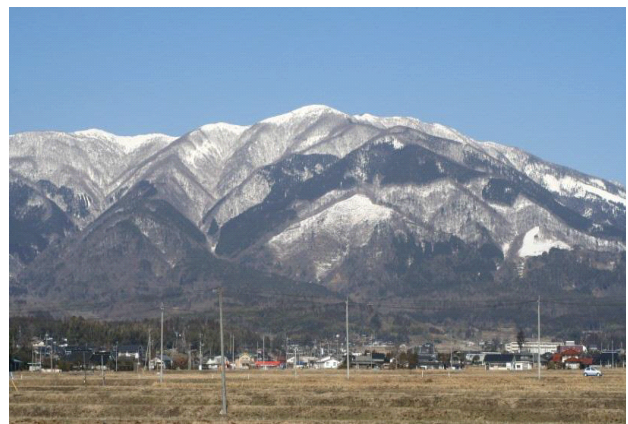
<야마노 에키 관리사무소 실내>

□ 시사점

- 나기정이 높은 출산률(평균 2.3명)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위대가 주둔하고 있어 다수의 젊은 부부가 거주하기 때문임
 - 특히 자위대 주둔에 따른 국가보조금으로 다양한 육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
-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기정은 인구유지를 위한 다양한 육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젊은 층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음
 - 주거지 정비, 나기정 현대미술관 및 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청년층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
 - 또한 나기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축제와 관광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점도 주요한 사항임



<나기정 현대미술관>




<나기산 전경?>

- 특히, 그동안 육아정책이 아이들에게만 집중되었던 것에서 나아가 육아에 지친 엄마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점도 주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
 - 공주시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엄마들이 치유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

〈インタビュー者 名簿〉



NPO法人

 倉敷町家トラスト

代表理事

中村 泰典

TEL: 080-5232-6462 FAX: 086-451-8693

Eメール: info@kurashiki-machiya-trust.jp

ホームページ: <http://www.kurashiki-machiya-trust.jp/>

事務局: 〒710-0053 岡山県倉敷市東町1-21 NPO法人 倉敷町家トラスト

倉敷市教育委員会 生涯学習部 文化財保護課

主任 藤原 憲芳

〒710-8565 倉敷市西中新田640番地

TEL(086)426-3851

FAX(086)421-6018

E-mail: cltprpt@city.kurashiki.okayama.jp



倉敷市教育委員会生涯学習部
文化財保護課

主任 木村 光孝

KIMURA MITSUTAKA

一級建築士



〒710-8565 倉敷市西中新田640番地 TEL (086) - 426 - 3851

FAX (086) - 421 - 6018

E-Mail cltprpt@city.kurashiki.okayama.jp

瀬戸内国際芸術祭 2019 Setouchi Triennale 2019

春:4月26日|金|-5月26日|日| 夏:7月19日|金|-8月25日|日| 秋:9月28日|土|-11月4日|月|

Senior Staff, Setouchi Triennale Promotion Division, Kagawa Prefectural Government

WATANABE, Mayu

Setouchi Triennale Executive Committee Office

Takamatsu Passenger Terminal Building 3F, 1-1, Sunport, Takamatsu, Kagawa, 760-0019, Japan

Tel: +81-(0)87-813-0852 Fax: +81-(0)87-813-0858 E-mail: pd1377@pref.kagawa.lg.jp

瀬戸内国際芸術祭実行委員会事務局(香川県文化芸術局内)

〒760-0019 香川県高松市サンポート1番1号 高松港旅客ターミナルビル3階

Tel: 087-813-0852 Fax: 087-813-0858 E-mail: pd1377@pref.kagawa.lg.jp

S E T O U C H I
T R I E N N A L E
2 0 1 9

香川県瀬戸内国際芸術祭推進課 課長補佐
交流・式典Gr. グループリーダー

石塚 博文



setouchi-artfest.jp

瀬戸内国際芸術祭2019 4.26開幕



岡 山 県 美 作 市

企画振興部 企画情報課

主 査 平 田 理 佐

〒707-8501 岡山県美作市栄町 38-2

TEL 0868-72-6631 FAX 0868-72-6367

E-mail : risa_hirata@city.mimasaka.lg.jp



岡 山 県 美 作 市

企画振興部 企画情報課

係 長 小 守 正 人

〒707-8501 岡山県美作市栄町 38-2

TEL 0868-72-6631 FAX 0868-72-6367

E-mail : masato_komori@city.mimasaka.lg.jp



梶並地区活性化推進委員会
副会長

新 免 美 紀 恵

Shinmen

Mikie

〒707-0201

事務所：岡山県美作市梶並 70 やまゆり苑内

Tel&Fax 0868-75-3444 携帯 090-1681-5089

HP「かじなみ暮らし」<http://kajikatsu.webcrow.jp/>



みらいを、掘り起こせ

奈義町

総務課長
情報財政課長
演習場対策室長

金田 知巳

Tomomi Kaneda

岡山県 奈義町役場

〒708-1392

岡山県勝田郡奈義町豊沢306-1

tel 0868-36-4111 fax 0868-36-4009

tomomi_kaneda@town.nagi.lg.jp

soumu@town.nagi.lg.jp



みらいを、掘り起こせ

奈義町

情報財政課
副参事

佐々木 伸江

Nobue Sasaki

岡山県 奈義町役場

〒708-1392

岡山県勝田郡奈義町豊沢306-1

tel 0868-36-4140 fax 0868-36-6780

sasaki@town.nagi.lg.jp

zaisei@town.nagi.lg.jp